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April, 2021. 587~594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2.587

COVID-19시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여가제약협상의 관계

임진선[1] · 최아론[2]†

[1]우석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조교수
[2]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2021년 4월 15일 접수: 2021년 4월 30일 수정: 2021년 4월 30일 채택)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methods an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in COVID-19 Pandemic

Lim, Jin Sun[1] · Choi, A Ron[2]†

[1]Department of Sports Coaching, Woosuk Univ.
[2]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April 30, 2021; Accepted April 30, 2021)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제약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 전남, 부산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18.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ANOVA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유형에 변화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방안에 대한 세부적 접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추구)이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COVID-19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연계한 여가제약이나 여가만족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COVID-19, 대학생, 스트레스 대처방법, 여가제약협상,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in the post-corona era affec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rom January 25th to February 19th, 2021, 247 copies were used for this study, excluding 13 questionnaires from Jeonbuk, Jeonnam, and Busan.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Corresponding author
(E-mail: aron0924@woosuk.ac.kr)

analysis,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AMOS 18.0.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ypes of leisure before and after COVID-19. According to the stress coping method of college students, it appears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art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detailed approach to the coping pla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e stress coping method(Active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Therefore, future research will require efforts to verify their relationship with various approaches to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s, and stress and stress response strategies with COVID-19.

Keywords : COVID-19, College Student, Stress coping metho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1. 서 론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강화, 확진자의 동선 파악,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많은 부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은 대학가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한다. 대학들은 수업 역시 언텍트로 진행되면서 교수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테크노스트레스 발생에 대한 언급들도 표면화 되었다[1].

COVID-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들은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범이 된다[2-3]. 특히 위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나 소외감을 겪게 되는 상황 등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가 된다. 이는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해 20~30세 사이의 연령층이 스트레스 위기에 일상생활과 삶의 기회에 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대처방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려는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6].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국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방어, 개인적 성향에 따른 방어나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7].

한편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8] 여가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운동선수와 일반학생에 대한 여가태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가활동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COVID-19는 일상의 여가활동의 패턴들을 변화시켰고, 사회 규제에 따른 여가활동의 패턴을 여가활동 참여자가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모색하며 여가제약을 살펴본 연구[9]를 통해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10]의 연구에서도 COVID-19 이전과 이후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가 분명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은 줄어드는 데 반해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COVID-19로 인해 여가동기와 건강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일상에 COVID-19로 인한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이러한 여가제약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1-12]. 또한 대학생들의 여가제약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가활동의 참가의도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13], COVID-19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의 특성

과 여가제약 협상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COVID-19로 인한 여가활동의 변화에 따른 차이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제약협상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COVID-19이전과 이후의 여가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 전남, 부산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집방법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sns로 배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된 응답을 한 설문지만 활용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4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구

2.2.1. 스트레스 대처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7]를 국내 연구에서 이 척도를 번안 및 수정하고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만든 척도를 단축형 24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7, 14-15]. 척도는 적극적 대처 12문항과 소극적 대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 대처는 사회적지지 추구(6문항)와 문제 중심대처(6문항)로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6문항)와 정서 중심적 대처(6문항)로 각각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소극적 대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2.2. 여가제약 협상 전략

여가제약협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기에 개발된 내용을[16] 국내연구에서 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연구에서 여가제약협상은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노력(6문항),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7문항), 여가활동 강도 조절능력(3문항), 여가활동 기술습득 노력(3문항),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노력(2문항),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3문항)의 6개의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2.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2명의 전문가(여가학 전공교수1인, 심리학 전공교수1인)들이 내용타당도 확보를 한 후 대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거 된 자료를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emograohic Characterisrics

Category	Characterisrics	n	%
Gender	Male	81	32.8
	Female	166	67.2
Age	Under 20 years of age	41	16.6
	20 ~ 25years	188	76.1
	26 ~ 29years	13	5.2
	more than 30years old	5	2
Grade	Grade1	20	8.1
	Grade2	58	23.5
	Grade3	67	27.1
	Grade4	102	41.3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247)

	df	x^2	*CFI*	*TLI*	RMSEA(.072)	
					LO90	HI90
model	51	115.213	.911	.884	.054	.089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적절하다는 선행연구[18]를 기반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Table 2〉,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위해 *RMSEA*값과 TLI, CFI값을 활용하였다. *RMSEA*값의 경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 이며 .10 이상의 수치를 보일 경우 부적절한 적합도로 판정한다. TLI와 CFI 지수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며 좋은 적합도 .8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기 전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개인 잠재변인(스트레스 대처방법, 여가제약협상전략)을 하위요인에 따라 총 10개의 측정변인으로 나누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FI=.911, TLI=.884, RMSEA=.072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그 값은 〈Table2〉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경우 적극적 대처(.793)와 소극적 대처(.607)로 나타났고, 여가제약협상(.881)로 신뢰도가 나타났다.

3. 결 과

3.1. COVID-19로 인한 분포에 따른 차이 분석

대학생들의 COVID-19의 전후의 여가유형에 대한 변화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동적 여가유지', '여가활동의 유형변화', '비활동적 여가유지'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스트레스 대처방법(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과 여가제약협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Table 3〉.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변화의 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다만, 대학생들의 여가제약협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p<.05).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의 사후분석 결과 활동적 여가활동의 집단은 여가제약협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가활동의 유형을 변화한 그룹 경우,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고수한 집단보다는 여가제약협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3.2. 스트레스 대처와 여가제약협상과의 위계적회귀분석

대학생들의 COVID-19상황에서의 여가활동변화를 통제한 후 스트레스 대처가 여가제약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COVID-19의 여가활동의 유형이 '기존 활동적 여가로 유지'와 '기존 비활동적 여가로 유지'되는 경우를 통제변인으로 두고 여가제약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요인인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여가제약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Table 4〉.

모형1에서 적합도는 *F*값이 5.448(p<.01), 모형2에서는 *F*값이 15.334(p<.001)으로 나타났다(p<.05).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확률이 .05미만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값이 1단계에서 .043으로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277로 R^2변화량이 .234로 *F*변화량이 19.452(p=.000)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와 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의 경우, .1 이상으로 나타났고, VIF값은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비활동여가더미(β=-.212, p<.01)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여가변화에 대한 통제변수가 투입된 후 에도 스트레스 대처의 적극적 대처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One way ANOVA for pattern of leisure activities

		n	*m*	*sd*	*F*	*p*	*Scheffe*
Active coping method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49	2.60	.400	.390	.678	-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117	2.62	.398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81	2.57	.447			
Passive coping method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49	2.65	.296	.301	.740	-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117	2.66	.315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81	2.63	.381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a]	49	3.14	.517	5.448	.005	c<b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b]	117	3.32	.548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c]	81	3.07	.568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F*	R^2	adj.R^2
Model 1								
constant	3.328	.051		65.619	.000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182	.093	-.130	-1.947	.053	5.448**	.043	.043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252	.079	-.212	-3.176	.002			
Model 2								
constant	1.213	.293		4.146	.000			
Maintenance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181	.082	-.122	-2.199	.038			
Maintenance of passive leisure activities	-.228	.070	-.184	-3.257	.002			
Active problem solving,	.361	.069	.309	5.203	.000	15.334***	.277	.234
Social support seeking	.239	.062	.228	3.838	.000			
Emotional relieving	.057	.071	.045	.795	.428			
Wishful thinking	.137	.079	.101	1.729	.085			

**p<.01, ***p<.001, DW(Durbin-Watson)=1.943,
Reference group: The pattern of change in leisure activity

문제중심대처(β=-.309, p<.001)와 사회적지지추구(β=.228, p<.00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레스 대처 요인의 적극적 대처인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추구가 증가 할수록 여가제약협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COVID-19 전후로 여가활동의 변화가 있었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COVID-19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여가제약협상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패턴의 구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법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가제약협상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변화한 형태가 비활동 여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의 패턴 변화에 따르는 선택과정이 여가제약협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여가제약협상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의 변화가 여가 패턴을 바꾸게 한다[20-21]는 의견과 COVID-19의 상황이 이러한 변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여가활동이 사회현상의 주요사항이 되며 대학생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의 세부적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의 적극적 대처 방법인 사회적지지추구와 문제중심대처가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한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통제한다고 하여도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형태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인 사회적지지추구와 문제중심대처가 여가제약협상전략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또한 COVID-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활동을 개선하는데 있어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 보면, 학생들간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참여자 스스로 여가활동에 대한 지지의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엿 볼 수 있다[8]. 다만, COVID-19 이전보다 이후가 대인적 제약이 높기 때문에[23]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에서 동반자 탐색 하거나 이를 통해 여가참여에서의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제약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의 변화에 상호작용을 하며 제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22]. 즉, 대학생들의 문제중심적 대처가 여가활동을 위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주요 사항임을 알 수 있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노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여가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전략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과의 연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여가활동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있는 놀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대한 진지한 여가경험의 상태는 이들의 참여자의 행복감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된다[23]. 또한 사회적 지지의 현상들도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경험이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때문에[24] 대학생들의 기술습득 노력에 문제중심적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개선되는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요소가 불균형 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는데 있어 여가활동이 갖고 있는 휴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25].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의 적극적 대처방법들이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분명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대학교육에서의 여가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적용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패턴의 변화와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이 나타났다.

첫째, COVID-19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고, 활동과 비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비활동 참여가 활동으로 바뀐 경우가 여가제약협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참여자의 일상생활이 언텍트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가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지지가 여가제약협상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적 상황에 대한 요소가 스트레스에 귀인하는 현상들이 있었고, 이러한 요소에서 제약적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강화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여가활동에서의 참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진지한 여가와 연계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진지한 여가경험은 참여자의 여가경험의 깊이를 알아보는데 주요사항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접근을 통해 참여자의 여가활동 관심정도와의 연계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몰입을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COVID-19 상황에서 적정여가활동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진지한 여가 경험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한 접근은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정도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1. S. H. Kim, S. H. Cho, Y. H. Cho, “Structural relationship of Institutional Supports for Teaching and Learning with Technostress of Faculty and Students on Campu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7, No.3, pp. 403-424, (2020)
2. G. S. Yu, S. S. N. Ju, J. W. Kim, “COVID-19-related stress experienced by married men and women: Focus on the intersectionality by gender and social class”, *The Women's Studies*, Vol.106, No.3, pp. 403-424, (2020)
3. C. Y. Park., C. K. Lee,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stress and job anxiety of tourism industry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Korean Hospitality and Tourism Academe*, Vol. 29, No. 8, pp. 43-57, (2020)
4. M. I. Sung, M. J. Chin, Y. E. Chang, S. H. Son, “Changes in Daily Life and Perceived Str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5, No.3, pp.403-424, (2020)
5. S. H. Lee., S. H. Choi, Sung, “Analysi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Market Areas Using Credit Card Big Data: A Case of Suwon”, *Space and Environment*, Vol. 30, No. 3, pp. 167-208, (2020)
6. Y. M. Ryu,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Subjective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ress Coping Styles” Unpublished Mast of Art Andoong national University, (2021)
7. S. Folkman, R. S. Lazarus,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8, No.1, pp. 403-424, (1985)
8. B. R. Kim., J. H. Park.,& Y. J. Choi,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Attitude, Perceived Stress and Stress Coping in College Student-Athlet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4, NO. 4, pp. 469-481, (2015)
9. H. J. Sa, J. H. Han, "COVID-19 and Leisure Constraints: Testing Hierarchical Leisure Constraints Model",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60, No.1, pp. 403-424, (2021)
10. G. H. Park, S. Y. Lee, J. W. Kim, "Leisure Changes of University Students by COVID-19 and the Relationship on Leisure Motivation and Health Belief",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44, No.3, pp. 403-424, (2020)
11. E. L. Jackson, D. W. Crawford, G. Godbey,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 Vol.15, No.1, pp. 403-424, (1993)
12. J, Hubbard, & R. C. Mannell,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Leisure Science, Vol.23, No.3, pp. 403-424, (2001)
13. S. S. Oh, G. R. Shin, B. H. Yeon, "Leisure Studies Term of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Study", *Journal of Leisure Studies*, Vol.11, No.1, pp. 403-424, (2013)
14. J. H. Kim, "Components of the Stress Response Method Scal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37-43, (1985)
15. J. Y. Park, "Approximation Capability of Radial-Basis-Function Neural Networks", *Journal of KIISE(B),* Vol.22, No.9, pp. 403-424, (1995)
16. A. Loucks-Atkinson, & R. C. Mannell,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Vol.29, No.1, pp. 403-424, (2007)
17. K. S. Kim, S. H. Hwang, D. Y. Won,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7, No.3, pp. 403-424, (2008)
18. H. J. Eom, C. O. Jang, "Use and misuse of EFA, CFA, and SEM methods: A content analysi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7, No.2, pp. 403-424, (2008)
19.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1, pp. 403-424, (2000)
20. C. W. Lee, "How Can We Activate of Taekwondo for Adulf Group", *Korea sport research*, Vol.16 No.2, pp. 403-424, (2005)
21. Y. S. Kim, "The Change of Everyday Life and Leisure by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Since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Leisure Studies,* Vol.6 No.1, pp.403-424, (2008)
22. M. B. Lee, C. W. Lee.,& H. H. Kim, (2014). "Grounde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Leisure", *Journal of Leisure Studies,* Vol.12, No.2, pp.43-67, (2014)
23. J. H. Ha., J. Kim, "The Difference of Serious Leisur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Activit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57, No. 1, pp. 565-577, (2014)
24. T. J. Yang, I. H. Kim, "Influence of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Serious Leisure and Exercise Adherence in Tennis Club Memb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6, No. 5, pp. 523-535, (2017)
25. J. Dumazedier, *"Sociology of leisure"*, Amsterdam: Esevier, (1974)